

Nightscape_Scenario



작성일자: 2024-04-12

작성자: 박천웅

문서 이력

순번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1	박천웅	2024-04-12	목차 구성
2	박천웅		

Index

Index.....3

1. 등장인물.....4

2. **스토리 보드**.....6

3. Scenario Script.....7

Chapter 1: 영원한 밤의 배회하는 망령.....7

 #S1 깊은 밤의 검은 숲.....7

1. 등장인물

- 주인공 : 본래 쾌활하고 능동적이며 자신만만한 성격이지만, 현실과 사회의 벽에 부딪히면서 갇혀 나가 반쯤 텅 비어버려 무기력한 성격.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마주하는 과거의 꿈, 기억, 시련을 거치면서 점차 본래의 성격을 되 찾아 간다. 초반에는 대사도 없고, 반쯤 초연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여러 구역을 통과할수록 인간미와 쾌활함을 표출한다.
- 입신양명 : 주인공의 과거 스승이었던 존재의 모습을 빌린 학업 구역의 보스. 1구역 내내 우상단에 위치한 배경으로 존재하는 보름달이지만 보스방에 들어설 경우 얼굴을 드러내며 맵으로 내려온다. 기본적으로 주인공을 깔보며 경멸어린 표정과 무시하는 어투를 사용한다. 매우 교조적인 태도를 통해서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한다. 한 번 학업의 길에서 고통받다가 어긋나버렸던 과거의 미련이 형상화된 보스이다. 결국 주인공에게 패배할때는 길을 터주면서 졸업이라면서 시니컬하게 말하며 소멸한다.
- 약자도태 : 주인공이 어린시절 다녔던 태권도 관장의 모습을 빌린 경쟁 구역의 보스. 2구역 내내 간헐적으로 들리는 기합소리의 주인공이다. 기본적으로 매우 열혈 캐릭터이며 근성과 정신력을 신봉한다. 신체적인 한계로 무릎 꿇어야 했던 주인공의 이루고 싶었던 이상을 형상화한 보스이다. 넘치는 자신감과 기합 넘치는 대사로 주인공을 가로 막는다. 말로 하는 대화보다는 몸으로 부딪치는 대화를 즐긴다며 전투 중에는 대사거 거의 없다. 주인공에게 패배할때는 자신도 쓰러뜨릴 의지라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소리치며 등을 밀어주곤 소멸한다.
- 별의몰락 : 주인공이 존경했지만 일찍 요절했던 비운의 가수의 모습을 빌린 기대 구역의 보스. 통기타와 하모니카를 무척 잘볼 것 같이 보인다. 현실에서 지친 삶 속에서도 희망을 불렀던 것과는 다르게 절망과 비탄이 담긴 음울한 노래들을 부르며 주인공에게 나아가지 말라고 설득한다. 무명가수 생활에 지쳐버린 주인공이 자신의 포기를 합리화해주는 우상의 모습을 형상화한 보스이다. 기대를 했기에 실망하는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를 보인다. 주인공에게 패배할때는 도전하지 않는다면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는 법이라면서 주인공의 도전을 응원해준다.
- 고정관념 : 선글라스를 끼고 신부복을 입은채로 민머리에 염주를 목에 두르고 각종 패션 아이템으로 무장한채 커피와 술로 카테일을 만드는 행위를 영상으로 찍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편견 구역의 보스. 어떤지 쉽게 될 수 있을 거 같으면서도 묘하게 어려울것만 같아 진입장벽을 느껴야 했던, 겉 껍데기들의 집합체를 형상화한 몬스터이다. 근본을 알 수 없는 랩으로 대사를 치면서 종잡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 그러나 점점 각 패턴별 기믹을 파괴할때마다 해당 직업을 상징하는 아이템들이 파괴되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머리털 마저) 모습이 되어 홀가분한 태도로 주인공과 결별한다. 무거운 추(주변의 편견)을 떨치고 사라지는 모습은 주인공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준다.
- 호구지책 : 어쩐지 초연한 얼굴과 허허로운 분위기, 신선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가난 구역의 보스. 돈보다는 명예와 명성을 추구한다 합리화해봐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속세에 미련 한줌 안남은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몬스터이다. 그러나 반대로 패턴 기믹을 해제될때마다 허허로운 분위기로 감추었던 추악한 울분을 토해내면서 주인공에게 고통을 뱉는다.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선 초연이 아닌 무기력한 모습이 되어서 잿가루가 되어 무너져내린다.

- 고식지계 : 왁스로 잘 올려진 앞머리, 건장한 체구, 뚝뚝해 보이는 사각 무테 안경과 날카로운 눈매, 검은 정장을 입은 상식 구역의 보스. 주인공이 언젠가 마주했던 소위 말하는 엘리트 회사원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몬스터이다. 지극히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기계적인 말투로 주인공을 지적한다.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보스들과 비교해도 가장 주인공에게 무감정하고 무신경한 느낌을 준다. 철저하게 공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화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그저 각자 자기 할 말만 독백하는 형태.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며 조용히 존재감을 지운다. 극도로 개성이 억눌려 인간성을 상실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주인공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 일면지분 : 어디에서나 마주할 수 있을거 같은 지극히 평범한 얼굴, 평균적인 키를 갖고 있는 친구 구역의 보스다. 얼굴 한 번 본적 없지만 자꾸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그 존재를 인지하게된 수많은 엄마친구 아들들의 상상된 모습을 형상화한 보스이다. 저런 성공을 한 인물들이 얼굴도 잘났거나 몸이 좋을리 없다는 굉장히 열등감이 섞인 편견으로 외형적인 너프를 먹었다면서 주인공에게 투정부린다. 기본적으로 유쾌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 말이 직설적이고 꾸밈없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본인이 어떤 존재이며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장황하게 설명해준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보스들의 패턴을 요약해서 보여주며, 모든 구역의 몬스터들이 소환되어 그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다. 모든 패턴을 통과한다면 재밌게 잘 놀았다면서, 다시 내려올 생각은 말라고 친구. 라는 말과 함께 이별을 고한다.

2. 스토리 보드



3. Scenario Script

Chapter 1: 영원한 밤의 배회하는 망령

#S1 깊은 밤의 검은 숲

10001/

나레이션: (동화책을 읽듯 속삭이는 목소리로) 거대한 보름달의 빛으로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숲길 사이로 아지랑이 같이 흔들리는 그림자가 정처없이 배회한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 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그럴 이유 조차도 사고하지 못한다.

이지를 잃어버린 짐승이라 하기엔 최소한의 본능마저 느낄 수 없다.

때문에 이르길, 이 영구히 지속되는 깊은 밤에 자리잡은 검은 숲에 묶여버린 망령이라.

오늘도 어김없이 달 빛이 보여주는 검은 숲길 사이로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발걸음이 옮겨진다.

제 형체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부서지는 모습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어왔던가.

이곳은 밤이 계속되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본능이었으니까. 잠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걷는 이유였으니까.

그러나 그것 마저도 이제 한계다.

주인공 :

나레이션: (서서히 힘이, 의지가, 생명이 빠져나가는 목소리로) 그의 발걸음이 결국 멎는다. 서서히 흔들리는 형상은 조금씩 흩어지려는 듯 이지러진다. 파편화되어 잊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그를 스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흐려지는 이지 속, 문득 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보름달.

그 빛 속에서 잊었던 광경이 놀랍도록 선명하게 떠오른다.

주인공 : (멍하게 현실감 없는 느낌으로) '내가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던 거지?'

Nightscape_Scenario

나레이션: (조금씩 힘이 다시 돌아오는 목소리로) 분명 그가 있던 곳은 이런 밤 속이 아니었습니다. 저 보름달과는 비교가 안되는 빛이 가득한곳. 영원히 낮이 지속되는 그 어디보다 밝았던 곳. 조금씩 조금씩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발목 잡혀서 서서히 태양이 지는 구역으로 몰렸을때만 해도 그는 분명 스스로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주인공: (곧게 다짐하는 느낌으로)'가야한다. 여기서 잊혀 질 순 없어'

나레이션: 태양, 그래 그 빛에 녹아 사라진다고 해도, 그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했다.

마치 회광반조가 찾아온 노인처럼, 그의 이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명확하게 돌아온다.

흔들리던 형체가 곧게 서고, 드디어 그의 시야에 이 비틀린 공간이 들어온다.

어찌 세상이 영원히 밤일 수 있을까?

제 형상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더 늦기전 해야할 일은 명확했다.

또 다시, 이지도 본능도 잊어버리고 배회하는 망령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허무하게 놓칠 수 없다.

[입신 양명]: (교조적이고 경멸어린 말투로) 그저 주어진 운명을 받아드리고 편히 잠들면 되는 것을...

나레이션: 그가 정신을 차린 것이 불만이었던 것일까? 검은 숲 전체가 흔들리며 세상을 울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어디서 들어본 것만 같은 목소리는, 어쩐지 그를 거북하게 했다. 고요하던 검은 숲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입신 양명]: (훈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선언하듯)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망령이여, 본래 그대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 안식을 취하라.

나레이션: 그 어투는 매우 교조적이었고, 강압적이었다.

그림자는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그려지는 듯하다.

무뚝뚝하고 짜증이 가득한 중년의 남성.

머리가 반쯤 희어졌으며, 사각의 뿔테 안경을 끼고 한 손에는 출석부가,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있는 고집스러운 사람.

Nightscape_Scenario

그래, 언젠가 그의 스승이었던 존재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출세를 하고 싶다면,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한다 말하며 다그치던 목소리.

다 너를 위하는 소리라면서 소리치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이들과 못하는 이들을 명백하게 차별하던 행동들.

그 짜증나던 감정과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림자는 움직이기 시작했다.